

강진군, 예비귀농인 위한 서울농장 유치



강진군이 귀농을 준비하는 서울 시민들로 북적거릴 날을 앞두고 있다. 전국 많은 시·군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였던 '서울농장'에 전남 '강진군'이 선정됐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기대수명 증가로 귀농귀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단기 체류형 숙소, 전문 영농 교육을 위한 강의실, 문화 교육 시설 및 영농 실습장으로 구성된 서울농장을 조성, 귀농을 준비하는 서울 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와 직접 귀농 정착 지원을 위한 실습 농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농장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된 강진군은 칠량면 소재 폐교를 활용, 기숙형 교육 시설과 실습 농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 및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농장' 1개소 당 최대 5억원의 시설비와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된다.

지난 8월 서울특별시는 전국에서 서울 농장 공모신청을 받았다. 전남 강진, 충남 괴산, 경북 상주 등 12개 시·군이 서울농장 조성 사업에 참여를 신청했다. 서울농장이 조성될 경우 도시민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해 각 시·군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강진군 등 4개소를 서울농장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강진군 서울농장 예정지는 현재 귀농사관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옛 칠량 송로분교장이다. 2층 학교 건물, 관사, 숙직실 등 총 약 891m²의 건물과 부지 9천789m² 규모다. 약 10분 거리에 16,449m² 규모의 군유지를 임주자들이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실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귀농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서울시 직접 귀농 정착 지원 실습농장 첫 운영 1개소당 최대 5억원 시설비 및 운영 비용 지원

태로 운영 된다.

가우도, 다산초당, 백련사, 세계모란공원 등 주변에 산재한 여러 관광자원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농수축산물 생산 현장을 방문해 직접 맛을 보고 구입해가는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해서도 전망이 밝다. 실제 귀농에 관심 많은 서울특별시 귀농 교육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진을 홍보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연 200가구 이상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할 계획이다. 귀농인의 농업 창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으로 서울 농장을 유치함으로써 연간 2천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서울농장을 이용할 것"이라면서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최제영 기자



월출산에서 펼쳐지는 가을빛 국화향연

영암군, 오는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아반경관개장도

'2017 월출산 국화축제'가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16일간 명품 피서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월출산 기찬랜드에서 개최된다.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에서 펼쳐지는 가을빛 국화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0월 29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야간경관도 개장되어 지난해 55만여명의 관광객보다 더 많은 인파가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시행사의 경우 氣찬랜드에 국화 분화 23종 17만여점이 전시되는데 기찬랜드 입구에 랜드마크로 활용할 대형조형물과 기찬랜드 풀장 내 직경 6m에 이르는 태극문양, 백조 등의 작품이 새로 선보이며 기존 왕인문은 하단부 1m를 보강하여 더욱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또한 공연장 앞에는 말복장, 돼지우리 등 작은 동물농장이 배치되고 산책로 주변에는 코끼리, 낙타, 기린, 호랑이 등 동물원이 조성되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찬랜드 입구부터 관람로를 따라 국화 2만 5천여점이 배치, 식재되는 등 행사장 전체가 국화로 뒤덮여 관람객들은 깊어가는 가을 화려한 오색국향에 흠뻑 취하게 될 것이다.

행사기간 주말에는 다채로운 문화공연행사가 진행된다. 10월 28일 웅장하고 격조있는 팽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29일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옴니버스 시월애 뮤지쇼가 펼쳐진다.

행사기간 내내 진행되는 체험 행사도 다양하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국화화분을 만들고 집으로 가져가 키우는 '화분국화 테이크아웃', 국화입체체험과 국화

타부채 등 국화와 연관된 다채로운 체험행사에 워크볼안에서 볼품공위를 굴러다니는 어린이 맞춤형 놀이터인 '국화볼 워터피 아 놀이터, 어르신들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전통방식의 '떡메 치기 체험' 연인들의 '스미트포토 인화체험, 가족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관람객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제공하는 '氣찬건강체험 및 국화테라피 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밖에도 프리포즈 이벤트가 필요한 연인이나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랑하기 국화프로포즈와 축제장만 제대로 관람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 등은 축제의 재미를 더하고 영암군의 특색있는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와 고품질의 농특산물 판매점도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부터 경관조명 운영에 따라 다양한 야간행사도 기획된다. 10월29일 야간경관조명 점등식을 시작으로 별밤 버스킹, 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기찬랜드 풀장내 대형 유등 10점을 설치하는 등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화려한 조명과 다채로운 행사 속에 아름다운 국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평 영암군은 "2017 월출산 국화축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면서, "국화향기로 가득차게 될 월출산 氣찬랜드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손꼽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강원훈 기자

“어두운 밤길, 희망 메시지가 동행해요”

해남군, 가로등 활용 그림자 조명 설치...위로·응원메시지 전해



를 전하고 있다.

그림자 조명시설은 프로젝터에 메시지를 적은 특수필름과 LED 조명을 내장해 가로등이 켜질 때 동시에 센서가 작동해 가로등 주변 바닥에 메시지를 비추게 하는 방식이다.

일부 도시권에서 관광용 등으로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각 장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해남군의 설치 장소는 △해남고등학교 후문 △북색대지인 거리 삼지공원 입구 △문화예술회관 △우슬체육공원 수영장 입구 △해남공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가로등을 활용해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설치장소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두운 밤길, 가로등 조명이 밝아지면 군민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켜진다.

해남군이 가로등을 이용한 일명 ‘그림자 조명’을 설치, 색다른 볼거리를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5개소의 가로등에 그림자 조명시설을 설치 어두운 밤길에 활기를 더하고,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곡성군 농축협 임직원 한마음 상생대회

압록유원지서...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기원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지부장 신상선)는 관내 농축협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압록유원지에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기원 곡성군 농축협 임직원 한마음 상생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보성강변 일원 약 7km 구간을 걸기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유근기 곡성군수, 이민수 곡성군의회 의장 및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농협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곡성군 농축

협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을 한 뜻으로 계통간 상생하고 상호이해와 협력을 다지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곡성군지부 신상선 지부장은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곡성군 농축협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인 소득증대와 행복한 농촌건설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 광주 지역 안내 | |
|------------------|------------------|
| 계림 010-3635-7195 | 백운 010-2943-8374 |
| 중앙 010-3365-6200 | 광산 010-5604-6533 |
| 학운 010-4166-1810 | 송하 010-8620-1925 |
| 광천 010-6612-8599 | 임동 010-2656-4543 |
| 금호 010-6636-2775 | 양산 010-2646-3205 |
| 상무 010-5359-7406 | 오치 010-7532-3313 |
| 풍암 010-6634-5084 | 북구 010-4601-2080 |
| 화정 010-8438-3819 | 동운 018-611-7751 |
| 봉선 010-9474-0212 | 용봉 010-4601-2080 |
| 진월 010-2615-8374 | 두암 010-2684-6091 |

| ◆ 시 외 안내 | |
|------------------|------------------|
| 강진 010-4606-0660 | 영암 010-5655-2415 |
| 담양 010-3629-9016 | 완도 010-9578-5900 |
| 무안 010-5234-2313 | 장성 010-5287-7711 |
| 보성 061-853-9125 | 장흥 010-6234-6226 |
| 순천 010-2300-9083 | 진도 010-3081-5203 |
| 광양 010-5604-6981 | 함평 010-3625-3160 |
| 여수 010-6655-8503 | 화순 010-2077-6464 |
| 영광 010-3611-3081 | 곡성 010-3615-1088 |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